

일 주 문



인드림 '2012 가을 한마당' 인드림생명공동체 상임 대표 도범 스님은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2012 가을 한마당'을 개최한다.



'마음챙김수행의 날' 개최 조계종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BTN불교TV와 공동으로 10월 20일 플럼빌리지 법사단을 초청, '마음챙김수행의 날'을 펼친다.



'소통의 길 3천배' 정진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0월 27일 대웅전에서 부처님과 가귀되는 '소통의 길 3000배'를 진행한다. (02)720-1390



제22차 '비유으로 행복찾기'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9월 21일 서울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제22차 '비유으로 행복찾기'를 개최했다.



도원사 산사음악회 전남 화순 도원사 주지 진철스님은 오는 10월 1일 도원사 야외음악당에서 도원사 개원 6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다문화 어울림 마당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은 10월 7일 금강사 경내에서 '제4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여러나라 음식경연 및 차 어울림 마당'을 개최한다.



4대강 이후 변화 포럼 참여불교재가연대 이수덕 상임대표는 10월 9일 장충동 만해NGO문화센터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

대불종 만주사 시민화합 경로잔치 봉행



한국불교 대불종 총본산 만주사(총무원장 만주)는 아산시 범영기원 시민화합 경로잔치를 9월 15일 만주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석보광 대법황을 비롯하여 일불문도중앙회 회장 의륜스님, 송산 총무원장 등 종단 임원 및 각종 단지도자 및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만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만주사 수행정진 10년을 회향하는 큰 의미를 담아 쇠퇴해 가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들인 공양을 올리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사는 의륜 이사장, 송산 총무원장, 해광 이사장, 이명수 국회의원 등이 했다. (041)547-7792

“정상화와 문도화합에 힘쓸 터”

신임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그동안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던 백양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백양사 주지직 무대행을 맡고 있던 진우 스님(사진)이 9월 17일 신임주지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에게 백양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백양사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빨리 본사를 안정시키고, 파행적으로 이뤄진 일들을 수습하여 수행도량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총림의 정상화, 문도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백양사 소임자와 참여대중들은 100일간 참회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예불 후 108배 참회정진과 정근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백양사 대중들이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고 있다.

진우 스님은 “백양사는 최근 2~3년에 걸쳐 본사로서 진행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중 선원, 강원, 율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 점과 총무행정, 미비, 일부 문도간의 갈등을 꼽았다.

사부대중 108배 참회 정진 광제 스님 방장 추대 예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진우 스님은 “현재 한국의 대표적 수행처인 운문암이 안거기간에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태여서 대웅전 뒤에 신축중인 하선원(前 고불선원)을 보완하여 동안거를 지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폐쇄 직전인

강원과 율원을 복원하고, 향우 염불원까지 설치하여 총림의 골격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도 만암·서용 스님의 뜻을 잇는 ‘참사람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참사람운동에 대해 진우 스님은 “불교적 내용을 현실에 맞게 대중들을 위한 참사람운동을 전개하겠다. 백양사 스님들뿐 아니라 석학들을 초청하여 연구단체를 만들고 정기적 세미나와 수행조직을 만들어 전국화 하겠다”며 “향후 선원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결연사업을 진행 새로운 선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방장선출과 관련된 산중총회에 대해서는 “향후 대중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용·수산스님의 부촉유시에 따라 광제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한다는 원칙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양사에는 문도스님 30여 명이 참회기도와 함께 정상화를 위한 바쁜 손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진우 스님은 의외로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겉으로 보는 백양사는 혼란스럽다. 하지만 스님의 입장으로 보면 지나가는 인연이다. 스스로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기에, 지금 상황에 끄달리지 않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외 원조사업 활성화하겠다”

‘(사)하얀코끼리’ 발족한 범해 운영위원장 스님



“해외원조사업은 불교계가 기독교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늘 안타까웠습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해외원조와 문화교류를 확대해보자는 취지에서 ‘사단법인 하얀코끼리’를 설립했습니다”

해외원조사업을 위한 불교계 단체 ‘사단법인 하얀코끼리’가 발족한다. 이에 운영위원장 범해 스님(개운사 주지·사진)은 9월 19일 갤러리나무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업 내용과 목표를 설명했다.

하얀코끼리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화엄사 문화센터건립 ▷조선족 유치원 지원 사업 ▷네팔 자원봉사단 파견사업 ▷네팔 바글통 지역 초등학교 지원 사업 등을 벌인다.

범해 스님은 “지난 6월 20일, 조계종 중앙총회 총재모임이었던 보림회가 조계종단의 쇄신노력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해체를 결의했다. 하지만 영담스님이 ‘이왕 한번 맺은 인연이니 이 인연을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가 아지는 부족한 해외원조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가 보자’고 제안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안에 따라 보림회 회원 스님들은 전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7일 첫 운영위원회를 열어 범해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영담스님은 설립준비위원장 겸 이사장을 맡았다. 하얀코끼리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1시, 백범기념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진각종, 동국대 병원과 진료 협약

신도 10%, 스님·스승 25% 감면 혜택



진각종 교도들도 동국대 병원에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각종 총리원장 혜정 정사와 동국대의료원 태석기 원장은 9월 17일 동국대 일산병원 4층에서 진료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진각종 신도들은 동국대의료원 산하 일산병원과 한방병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석사동), 분당한방병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경주병원과 경주한방병원(경북 경주시 석장동) 등 5개 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및 입원진료비의 비급여, 선택진료비 1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교계 스님과 스승(정사, 전수)들은 본인부담금의 25%를 감면 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각종 총리원 기획과장 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상명 정사, 동국대 일산병원 법사 대업 스님, 체석래 일산병원장, 김민호 행정처장, 광월회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조계종, 신축법당 국방부에 기증



조계종이 국방부에 노산 육군훈련소 신축법당을 기증하며 불사를 성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은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정호 육군훈련소 소장에게 장병 정신교육도량으로 활용해달라며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기증서를 전달했다. 김정호 소장은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불자들의 정성이 모인 도량”이라며 “그것이 큰 만큼 많은 장병들이 불법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호국연무사 불사에 큰 힘을 보탠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민병덕 국군불교후원회회장(국민은행장), 호국연무사 주지 현조 이동경 법사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울산사암聯 ‘자비도량 참법 기도’



울산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불교신도회가 주관하는 '제2회 자비도량참법 5일 정진 기도법회'가 울산 중하체육관에서 열렸다. 1천여 명이 참석한 이 법회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봉행됐다. 한편 이날 모연된 수익금 1천5백여만원은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제1회 만다라매 불교축구대회 성료



불교총지중(총리원장 지상)이 주최하고 FC롯데(회장 이동격)가 주관한 '제1회 만다라매 불교축구대회'가 9월 15일 하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됐다.

불교계 최초 연합 축구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중앙승가대학, 한국불교기자협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사자후 봉은사 연합팀,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이하 사설사암연합회), 총지드레곤즈, FC롯데 총 8개 팀이 출전해 축구경기와 변의경기로 축구시합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경기는 승부차기로 총지드레곤즈가 초대 우승을 차지 우승트로피와 상금, 부상을 받았다.

제10회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국제학술 세미나

2003년 1회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천년의 원형을 유지하며, 한국 불교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 영산재는 한국의 대표적 불교예술로서 세계적 무형문화재 보존가치를 위해 학술적 기반과 더불어 10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이스라엘 공연과 텔아비브대학에서 거행된 제9회 영산재 국제 학술세미나는 유대교와 불교 등 종교 간의 통섭 폭넓은 소통은 세미나의 내적 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금년 학술세미나도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영산재의 위상 재조명 및 학술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 제 : 불교의식의 현황 - 과거, 현재, 미래

개회사 및 인사말 Opening Address & Greetings

개회식 오후 1:00 ~ 1:40

개 회 사 : 원허스님 (옥천범음대학장, 봉원사 부주지)

축 사 : 인공스님 (한국불교대학교 총무원장)

구해스님 (영산재 보존회 총재)

일운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장, 봉원사 주지)

기조연설 :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 해외에서 바라본 영산재의 위상

진 행 : 김응기 (법현) -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국내 발표자 논고

1. 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일고찰 심만춘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2. 한국 불교의례의 전통과 석문의법 양은용(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3. 불교 공연예술 박진태(대구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4. 불교 예술 무용 - 승무 - 정재만(숙명대학교 무용학과교수)
5. 불교 음악 선율 분석 김세종박사(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교수, 다산연구소 실장)

해외 발표자 논문

6. 대만불교 의식 현황 의은스님(대만불광사 한국분원 불광산사 주지)
7. 중국 불교의식 현황과 연희 박영일 (중국 연변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해외 발표자 투고 논문

8.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 방글라데시의 바울 노래 (BAUL SONGS OF BANGLADESH) 발표자 : 모하메드 알리 (방글라데시정부 기원연구부 지역책임자)
9.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 부탄 불교무용 - 드라메체로부터의 복춤 발표자 : 탄리 감초 (부탄 문화부)
10.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 러시아 - 쿠티야춤 - 세기의 귀중한 보물 발표자 : 리도바 N.R., 세계 문화연구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모스크바
11.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 일본 - 노우(能のう) 일본노우 무형문화재재단 발표자 : 노우 무형문화재 보유자

좌 장 : 유인명(연극 평론가, 단국대 명예교수 현 서울예술대학교 석좌 교수)

토 론 자 : 김영렬박사(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김말애(경희대 무용과교수, 문화재위원) 김향금(국립창원대학교 무용과교수 문화재위원),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손병우(예원예술대학교 무용과교수) 김태훈(원광대 한국문화학과) 최성규(위덕대학교) 김응기(법현)(동국대 한국음악과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장 소 : 2012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7시

서울 신촌 봉원사 옥천범음대학 2층 세미나실 (02-392-3234) 담당자 김혜련

주 관 : 한국불교대학교, (사)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영산재보존학회

후 원 : 한국불교대학교 봉원사

협 찬 : 한국불교대학교 총무원, (사)세계문화예술컨텐츠교류연맹, 불교음악연구소